

Executive Summary

2025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조사기간 2025.8.11.~8.18.

연구책임자

이상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무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봉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구본상 충북대 교수

정상미 국립외교원 교수



Executive Summary

2025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조사기간 2025.8.11.~8.18.

연구책임자

이상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민태은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무철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봉기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윤광일 숙명여대 교수

구본상 충북대 교수

정상미 국립외교원 교수

차례

I.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5
	1.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7
	2. 주요내용 요약	10

II.	남한과 북한의 비교	13
	1. 한반도에 대한 지식 수준	15
	2.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	16
	3. 남한과 북한의 국가 이미지 비교	17
	4. 자국과 남한·북한의 관계 평가	24
	5. 자국의 외교정책에서 남한과 북한의 중요성 인식	26

III.	한반도 평화와 통일	27
	1. 한반도 평화와 국제 사회의 지원	29
	2.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31
	3.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32
	4. 북핵의 자국 평화 위협에 대한 인식	34
	5. 북핵의 목적에 대한 인식	35
	6.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선호	37

IV.	국제 정세와 안보	39
	1. 미중관계 5년 전망	41
	2. 미국의 핵우산 정책 신뢰	43
	3. 미국인이 인식하는 주한미군	45
	4. 북일 관계	46

I.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I.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1. 연구의 목적과 방법론

조사의 목적

-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화해 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의 제도화”에는 “당국·민간·국제사회 협력을 통한 대화 재개 노력 경주”가 포함되어 있음.
- 이를 통해 남북한 평화공존을 제도화하여,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임.
- 한반도 평화는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안보의 문제이며,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 없이는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음.
- 이 연구는 세계 주요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그 결과 분석을 통해 세계 시민들의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고, 이에 바탕 한 맞춤형 통일 공공외교를 추진하는 기초자료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함.

조사방법

- 매년 조사대상 국가를 선정하여 각국 1,000명을 표본 조사함(미국은 2,000명).
- 온라인 패널을 이용한 웹조사를 실시함.
- 성별, 연령, 거주권역의 변수에 기반한 다층화 표본 추출법을 사용함.

조사국가 선정

- 2024년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베트남, 폴란드, 호주 등 8개국을 조사했고, 2025년에는 미국, 일본, 독일, 몽골,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폴란드 8개국을 조사하였음.
- 2025년 조사로 G7 주요국은 모두 1회 이상 조사되었음.
- 핵심관련국인 미국과 일본은 매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밖에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독일, 베트남,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키프로스 등의 국가, 인도 태평양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 등도 조사되었거나 향후 조사대상에 포함될 것임.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 동유럽 및 중유럽 국가들(폴란드,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도 향후 조사를 검토 중임.
-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여론조사가 쉽지 않은 상황임. 그러나 이 두 국가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도 조사대상에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있음.

[표 1-1]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조사대상국 일람: 2024~2025

조사대상국가	독일	몽골	미국	베트남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호주
2024	○		○	○		○		○		○	○	○
2025	○	○	○		○		○	○	○	○		

2025년 조사 응답자 특성

- 2025년 조사는 8개국(미국, 일본, 독일, 몽골,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폴란드)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9,519명의 응답자에게 설문을 실시했음.
- 미국은 2,000명, 그 외 국가는 각 1,000명씩 조사함. 추가 조사된 519명은 조사 품질 향상을 위해 오버샘플한 결과임.

[표 1-2] 글로벌 통일인식조사 2025 응답자 특성

		표본수	%
성별	남성	4,632	48.7
	여성	4,887	51.3
연령대	18-29세	1,681	17.7
	30대	1,686	17.7
	40대	1,622	17.0
	50대	1,556	16.4
	60세 이상	2,974	31.2
	국가	미국	2,080
일본		1,075	11.3
독일		1,080	11.4
폴란드		1,059	11.1
이탈리아		1,059	11.1
캐나다		1,047	11.0
스웨덴		1,079	11.3
몽골		1,040	10.9
합계		9,519	100.0

2. 주요내용 요약

II장. 남한과 북한의 비교

- 전반적으로 남한은 신뢰·협력의 국가, 북한은 위협·불신의 대상으로 인식됨.
- 유럽·북미는 남한을 성숙한 파트너로 평가하나, 일본은 남북한 모두에 냉담하고 불신이 강함.
- 대부분의 국가에서 북한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남한은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지 않음. 다만, 일본은 예외적으로 남한도 위협으로 인식함.
- 문화적·경제적 이미지에서도 남한은 선진적이고, 북한은 그 발전도가 낮다고 인식됨.
- 폴란드는 남한에 대해 “야망 있는 국가”로, 일본과 몽골은 “종속적 국가”로 보는 경향이 관찰됨.
-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으나 남북한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높고, 몽골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높으면서 동시에 남북 모두에 긍정적인 균형적 태도를 보임.
 - 남한은 전반적으로 국제적 신뢰를 받고 있으나, 일본의 냉담함이 동북아 이미지 균형의 약점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몽골은 남한과의 경제적·정치적 유대가 깊어지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과는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갖고 있음. 이런 점들로 인해 몽골 국민들이 남북한 모두에 대해 우호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III장. 한반도 평화와 통일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에 있어 미국은 모든 지원에 적극적, 일본은 소극적임.
- 통일을 경험한 독일 국민들은 한반도의 통일에도 긍정적 태도를 보임.
 - 국제사회는 통일 이상에는 공감하나,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임.
- 조사 국가 대부분에서 한반도 통일 필요성을 인정하나 가능성은 낮게 평가함.

- 일본은 통일 필요성과 가능성 항목 모두 최저, 몽골은 모두 최고를 기록함. 특히 일본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 회의적인 것은, 통일이 일본의 국익에 이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되었을 수 있음.
- 대부분의 국가는 “북핵을 공격적 위협(70~80%)”으로 인식. 일본(81.5%)·미국(73%)에서 위협 인식이 가장 강함, 유럽은 상대적으로 약함.
- 몽골만은 북한의 핵무기가 “자위적 목적”(69%)이라는 응답이 높음 → 북한과 전통적 우호관계 영향
- 북한 비핵화 방안: 외교적 수단 선호, 경제적 제재, 그리고 군사적 수단 순으로 선호함.

IV장. 국제정세와 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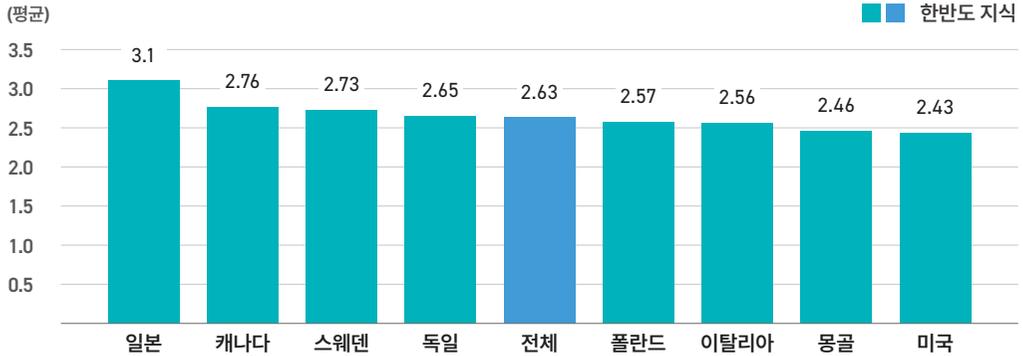
- 미중관계 전망: 86%가 “악화 혹은 정체” → 경쟁의 구조적 고착 인식
- 미국의 핵우산 신뢰도: 평균 38%, 남한(71%)·폴란드(49%)만 높음.
- 주한미군: 미국인의 75%가 유지·확대 찬성 → 미국인들은 여전히 미국의 국제 안보 역할에 대한 인식 강함.
- 북일관계: 일본 응답자 49%가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긍정

II. 남한과 북한의 비교

II. 남한과 북한의 비교

1. 한반도에 대한 지식 수준

[그림 II-1] 한반도에 대한 지식 수준



조사문항

- (1) “다음 중 남한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1=평양; 2=개성; 3=서울; 4=부산; 5=잘 모르겠다)
- (2) “다음 나라 중 가장 인구가 적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1=남한; 2=북한; 3=일본; 4=베트남; 5=중국; 6=잘 모르겠다)
- (3) “남한의 공식 언어는 중국어이다.” (1=그렇다; 2=아니다; 3=잘 모르겠다)
- (4)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다.” (1=그렇다; 2=아니다; 3=잘 모르겠다)

- 위 4개 문항에 대해 각각 정답을 1, “잘 모르겠다”를 포함하여 오답을 0으로 설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4점 만점의 “한반도 지식” 정도를 측정하였음.
- 한반도 지식 점수의 국가별 평균을 구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평균값이 높을수록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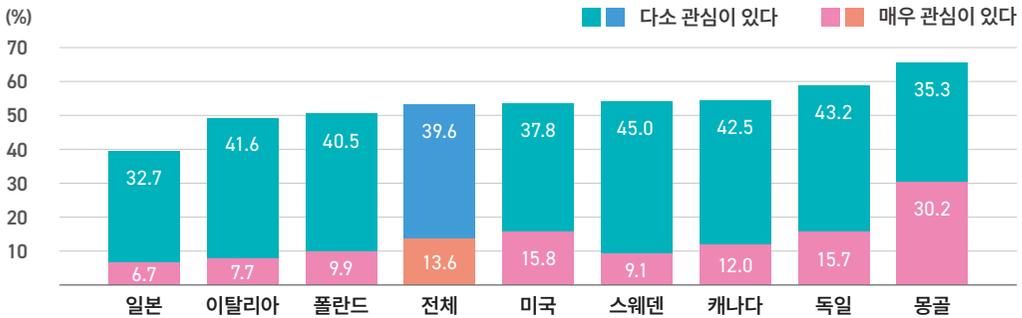
조사 대상 국가 중 일본인의 한반도 지식수준이 가장 높았음

- 일본 응답자의 한반도 지식 평균은 3.10으로 지식 문항 4개 중 3개 이상을 맞춘 유일한 사례임.
 - 지리적·정치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인 남한에 대한 일본인의 높은 관심과 자국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인 북한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보임.

- 동맹국인 미국의 평균 점수는 2.43으로 가장 낮았음. 미국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외교 및 국제 문제보다 국내 정치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한반도 문제 또한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부합하는 내용임.

2.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

[그림 II-2] 한반도 정세에 대한 관심



조사문항

- 질문 “귀하는 한반도 정세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 척도 1=매우 관심이 있다; 2=다소 관심이 있다; 3=별로 관심이 없다; 4=전혀 관심이 없다
- “관심이 있다”는 응답의 비율(%)을 위 그래프에 정리하여 국가별로 비교

일본의 낮은 관심과 몽골의 높은 관심

- 한반도의 정세 및 평화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본의 경우 의외로 관심이 있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음. 응답자의 39.4%가 다소 혹은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변함.
- 일본의 낮은 관심도는 남한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하고 있을 수 있음. 즉, 한반도의 정세가 일본의 관심을 끌 정도로 일본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일 가능성이 있음.
- 또 하나의 가설은,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식 수준을 가진 국가로, 한반도의 정세가 실제로 일본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음.

-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이 대체로 50% 정도의 관심을 보인 반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국가는 몽골로 65.5%가 관심 있다고 답변
- 몽골은 한반도 지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한반도에 대한 관심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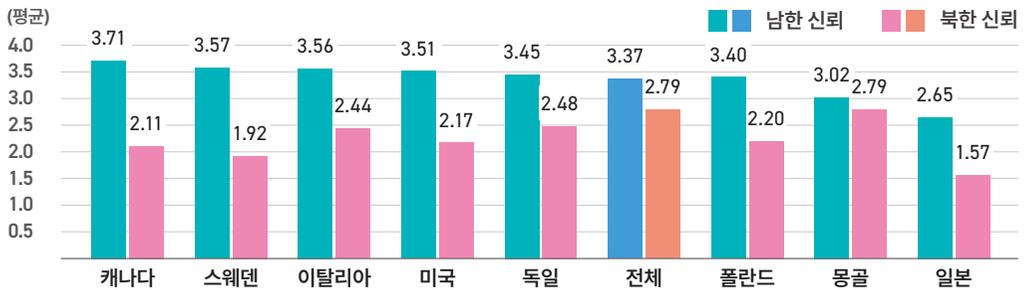
3. 남한과 북한의 국가 이미지 비교

국가 이미지의 의미와 측정

-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평가할 때, “친구”, “적”, “위험한 국가”, “깡패국가”, “종속국”, “후진국”, “선진국” 등 국가 이미지(national image)를 통해 바라봄.
- 이 조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국가 이미지를 “신뢰”, “존중”, “위협”, “비문명”, “야망”, “종속”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음.

(1) 남북한에 대한 신뢰의 수준

[그림 II-3] 남한과 북한에 대한 신뢰 이미지 비교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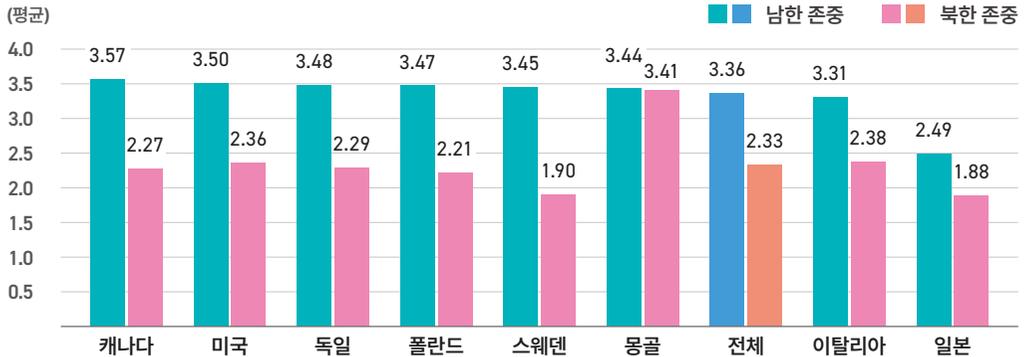
- 질문 “남한(북한)은 믿을 수 없는 나라이다.”
- 척도 1=매우 동의한다; 2=다소 동의한다; 3=보통이다; 4=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5=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이 질문에 대한 국가별 평균값을 정리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평균값이 높을수록 남한(북한)에 대한 신뢰가 높다는 의미

아시아 국가들의 다른 시각: 남북한에 대한 신뢰

- 유럽과 북미 국가들은 남한과 북한에 대한 신뢰도가 뚜렷한 차이를 보임. 북한에 대한 신뢰는 낮으며, 남한은 상대적으로 신뢰도가 높음.
- 중간값인 3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는 남한의 신뢰도 평균값이 3 이상임. 즉 남한에 대한 신뢰도가 중간 이상임. 일본이 유일하게 남한 신뢰도 평균값이 2.65이며, 이는 평균적으로 일본인들은 남한을 약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
- 남한과 대조적으로 북한은 모든 국가에서 3 이하를 기록함. 즉, 조사된 모든 국가에서 북한에 대한 신뢰가 낮았음.
- 몽골은 남한 신뢰는 3.02, 북한은 2.79로, 다른 나라에 비해 신뢰 이미지의 차이가 가장 작음. 그러나 몽골의 남한 신뢰 이미지와 북한 신뢰 이미지는 99%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임. 즉, 북한과 역사적으로 사이가 돈독한 몽골에서도 남한은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더 신뢰할 수 있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음.
- 유럽과 북미 국가들이 남한과 북한에 대한 신뢰 수준이 확연히 다름. 이들 국가는 남한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북한을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뚜렷이 대조하여 인식하고 있음.
- 같은 아시아의 몽골과 일본은 유럽 및 북미 국가들과 다른 방식으로 남북의 신뢰 이미지를 인식하고 있음.
 - 몽골은 남한과 북한을 비슷한 수준의 신뢰도를 가진 국가로 인식함.
 - 반면 일본은 남한을 북한보다 상대적으로 더 신뢰함,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일본인들은 남한과 북한 모두 신뢰도가 낮은 나라로 인식하고 있음.

(2) 다른 나라를 존중하는 국가

[그림 II-4] 남한과 북한의 외국 존중



조사문항

- 질문 “남한(북한)은 다른 나라의 입장을 존중한다”
- 척도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다소 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
- 이 질문에 대한 국가별 평균값을 정리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평균값이 높을수록 남한(북한)이 다른 나라를 존중한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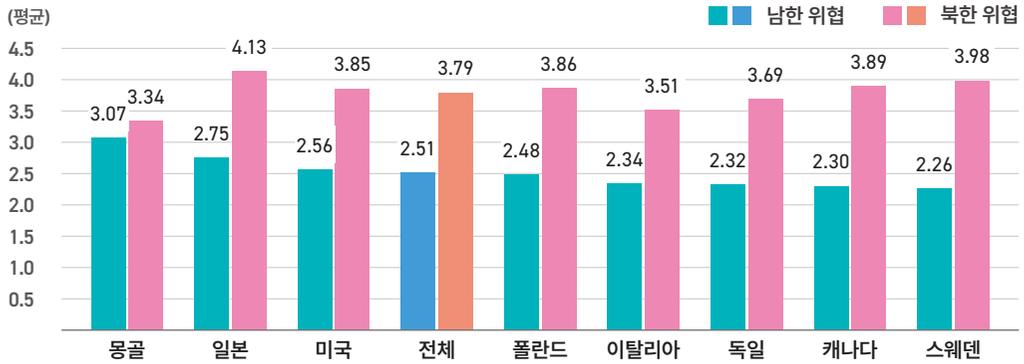
아시아 국가들의 다른 시각: 존중

- “다른 나라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평가는 남한이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에게 요구되는 규칙과 관행을 준수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 북한은 오랫동안 정상국가(normal state)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노력했으나, 몽골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북한의 존중 이미지 평균은 3 이하임.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 북한은 국제 사회가 요구하는 규칙과 관행을 준수하는 국가로 인식되지 못함.
- 신뢰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국가들과 북미 및 유럽 국가들의 시각 차이가 두드러짐. 특히 일본은 남한의 타국에 대한 존중을 2.49로 평가하여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 즉, 남한과 북한의 이미지는 유럽과 북미 국가에서는 일종의 길항관계 혹은 거울상(mirror image)으로 인식되는 반면, 아시아 국가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이미지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있음.

- 흥미롭게도 남한과 북한 모두 수교하고 있는 스웨덴에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가장 큼(남한 3.45, 북한 1.90). 이는 국교 수교가 국민들의 인식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함.

(3)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국가

[그림 II-5] 남한과 북한의 위협 이미지



조사문항

- 질문 “남한(북한)은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된다”
- 척도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다소 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
- 이 질문에 대한 국가별 평균값을 정리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평균값이 높을수록 남한(북한)이 다른 나라에 위협이 된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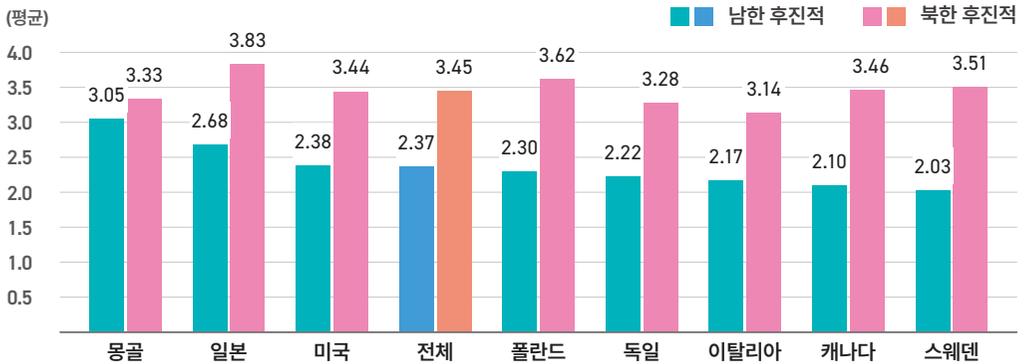
아시아 국가들의 다른 시각: 위협

- 북한을 가장 위협으로 보는 나라는 일본. 그러나 일본은 다른 서방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남한의 위협 평균값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음.
- 이 위협 이미지에서도 앞선 문항에서와 같은 국가 이미지 인식 패턴이 발견됨.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남한과 북한을 이분법적으로 인식. 즉 “남한은 신뢰, 북한은 불신”, “남한은 안전, 북한은 위협” 같은 길항관계로 인식함. 이는 한반도의 역사와 문화, 그 맥락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유럽 및 미국인들이 한반도 문제를 이해하는 방식을 보여줌.

- 서구 국가들과 대조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 아시아 국가들은 좀 더 자국의 국가 이익과 과거 역사를 통해 남한과 북한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문화적으로 후진적인 국가

[그림 II-6] 남한과 북한의 문화적 후진국 이미지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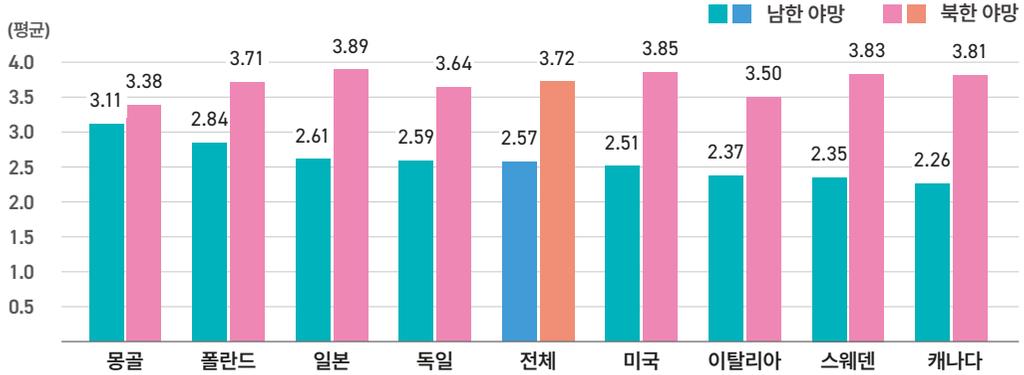
- 질문 “남한(북한)은 문화적으로 후진적이고 비문명적 나라이다.”
- 척도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다소 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
- 이 질문에 대한 국가별 평균값을 정리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평균값이 클수록 남한(북한)을 문화적 후진국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

아시아 국가들의 다른 시각: 문화적 후진국

- 남한은 몽골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문화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몽골이 평가한 남한의 문화이미지 평균값은 3.05로 중간값 3보다 살짝 높은 정도임.
- 반면 북한은 상대적으로 남한보다 문화 발전 정도가 낮다고 평가되고 있음.
- 같은 아시아 국가인 몽골과 일본도 남한과 북한을 인식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임. 몽골은 남한과 북한을 거의 모든 이미지에서 비슷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함. 일본은 북한에 대해 그 어떤 나라보다도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나, 상대적으로 남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강한 특징이 있음.

(5)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야망

[그림 II-7] 남한과 북한의 지배적 야망 이미지



조사문항

- 질문 “남한(북한)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려는 야망을 가진 나라이다.”
- 척도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다소 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
- 이 질문에 대한 국가별 평균값을 정리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평균값이 클수록 다른 나라에 대한 지배적 야망이 크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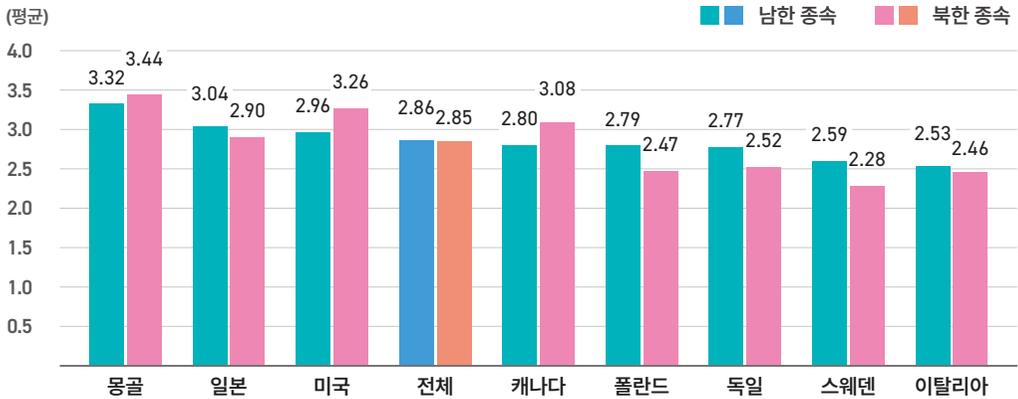
아시아 국가들의 다른 시각: 야망이 큰 국가

- 대부분의 조사대상국들은 남한의 지배야망을 낮다고 평가하면서, 북한의 지배야망은 보통 이상이라고 인식함. 몽골은 여기에서도 남북한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르지 않음. 몽골은 남한의 지배야망을 다른 조사대상국에 비해 가장 높게 평가하면서(3.11), 북한의 지배야망은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음(3.38).
- 폴란드는 기타 국가 이미지에서는 북미 및 유럽 국가들과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 이 지배야망에 있어서는 남한의 지배적 야망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
- 폴란드의 남한에 대한 이런 평가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항 개발을 통한 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할 것임. 이는 남한이 최근 폴란드에 막대한 군사장비를 수출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즉, 남한을 새로운 군사적 강자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일 수 있음.

- 남한의 최근 K-방산 수출 호황이 유럽의 재무장과 맞물려 성공한다면, 유럽 국가들의 남한에 대한 인식이 폴란드와 비슷한 패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남한은 따라서 적극적인 공공외교를 통해 이러한 인식이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6)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는 국가

[그림 II-8] 남한과 북한의 종속 이미지



조사문항

- 질문 “남한(북한)은 남의 눈치를 보며 움직이는 나라이다.”
- 척도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다소 동의하지 않는다; 3=보통이다; 4=다소 동의한다; 5=매우 동의한다
- 이 질문에 대한 국가별 평균값을 정리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평균값이 클수록 종속국 이미지가 강하다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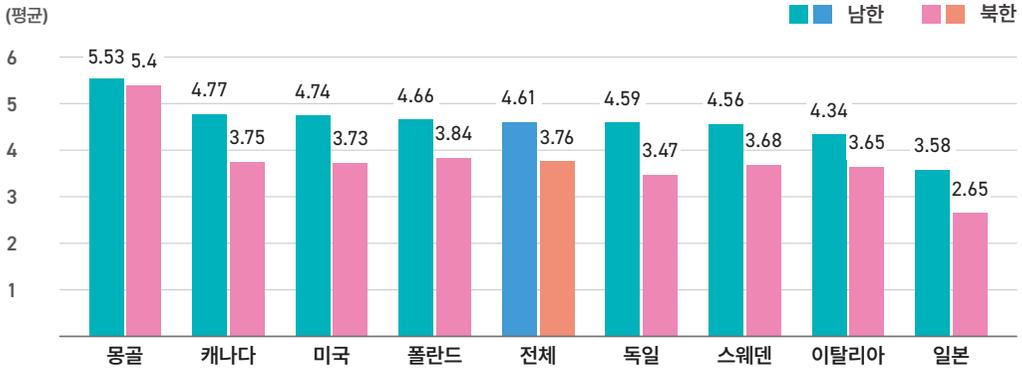
아시아 국가들의 다른 시각: 종속국 이미지

- “남의 눈치를 본다”는 이 지표는 유일하게 남한과 북한에 대한 평가가 나라마다 다 비슷하게 측정되었음.
- 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한 스웨덴, 이탈리아, 폴란드, 독일, 캐나다, 미국은 남한을 독립적인 국가라고 평가함(평균값 3점 이하).
- 남한이 종속적이라는 평가는 몽골, 일본, 미국 순으로 높았음.

- 북한이 종속적이라는 평가는 몽골, 미국, 캐나다 순으로 높았음. 이 세 나라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종속적이라고 평가. 그러나 나머지 5개 국가에서는 남한이 북한보다 더 종속적이라고 평가함.
- 이 문항에서도 아시아 국가들과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의 인식 차이가 발견됨. 남한의 종속 이미지 평균값이 3을 넘는 나라는 일본과 몽골뿐임. 조사 대상 국가 모두에서 남북한의 종속 이미지 평균값 간 큰 차이가 나지 않음.

4. 자국과 남한·북한의 관계 평가

[그림 II-9] 자국과 남한·북한의 관계 평가



조사문항

- 질문 “귀하는 현재 (조사대상국)과 남한(북한)의 관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척도 1=매우 부정적; 4=보통이다; 7=매우 긍정적
- 국가별 평균값을 위 그래프에 표시
평균값이 클수록 자국과 남한 혹은 북한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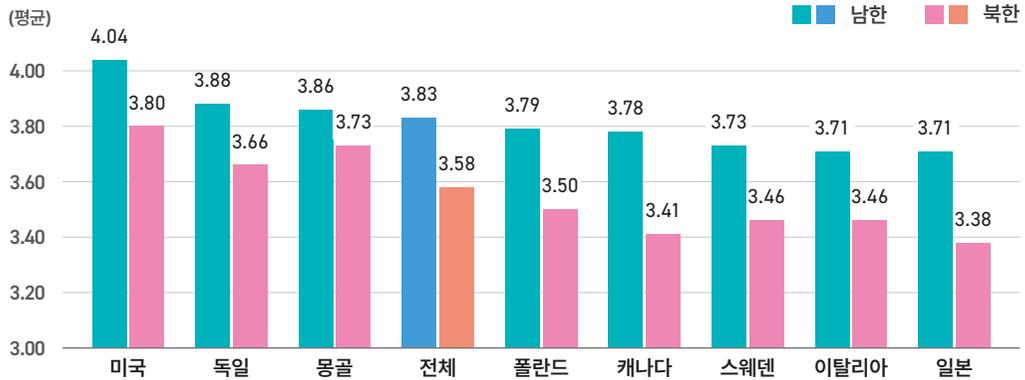
대체로 자국과 남한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북한과의 관계는 부정적으로 평가

- 모든 조사 대상국에서 남한과의 관계에 대해 평균 4점(보통)을 넘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남.

- 북한에 대해서는 몽골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4점보다 낮은 부정적 평가
- 몽골은 남한과 북한 모두 자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
- 일본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남한과 북한 모두와 자국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발견됨.
 - 북한의 군사적 위협 및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본인들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됨.
 - 2022년 이후 한일 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해서도 일본인들의 인식은 아직 부정적임. 향후 통일 과정에서 주변국 지지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 내 긍정적 인식 확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됨.
- 미국인들의 북미 관계 인식이 의외로 특별히 나쁘지 않으며, 다른 서방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임.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의 대화가 사실상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의외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크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음.
 - 이는 향후 북미 정상회담의 재개와 같은 계기가 마련된다면 충분히 미국 내 여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보여줌.

5. 자국의 외교정책에서 남한과 북한의 중요성 인식

[그림 II-10] 자국의 외교정책에서 남한과 북한의 중요성



조사문항

- **질문** “귀하는 _____의 외교정책에서 남한(북한)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척도** 1=전혀 중요하지 않다; 2=별로 중요하지 않다; 3=다소 중요하다; 4=매우 중요하다; 5=잘 모르겠다
- “잘 모르겠다”를 제외한 평균값을 위 그래프에 표시
평균값이 높을수록 해당 국가의 외교정책에서 남한(북한)과의 관계가 중요함을 의미

모든 국가에서 남한이 북한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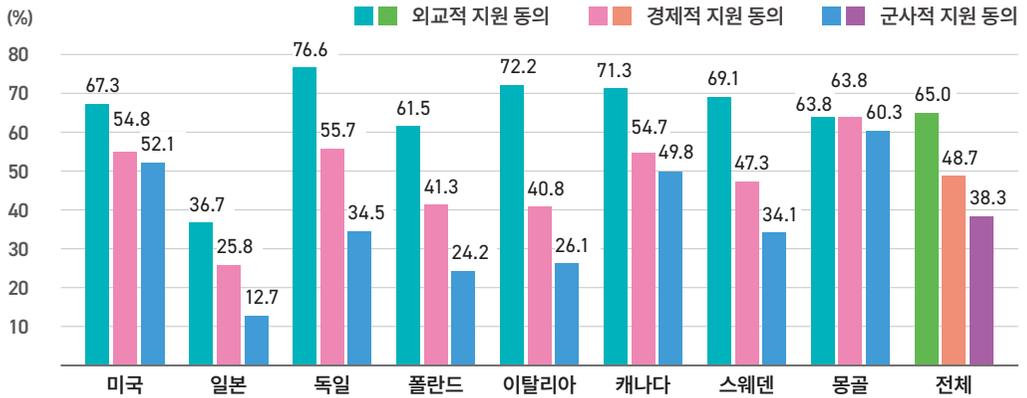
- 조사 대상국 모두에서 남한과의 외교관계를 북한과의 외교관계보다 중요한 것으로 인식함.
- 남한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한 나라는 미국인데, 미국은 동시에 북한과의 외교관계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음.
- 북한과의 외교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라는 일본(3.38), 캐나다(3.41), 이탈리아(3.46)이었음.

III. 한반도 평화와 통일

III. 한반도 평화와 통일

1. 한반도 평화와 국제 사회의 지원

[그림 III-1] 한반도 평화와 국제 사회의 지원



조사문항

- 질문

- (1) 외교적 지원 동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귀하 국가의 외교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귀하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2) 경제적 지원 동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귀하 국가의 경제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귀하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3) 군사적 지원 동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귀하 국가의 군사적 도움이 필요할 경우, 귀하 국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척도

- 1=한반도 평화를 외교적(경제적, 군사적)으로 도와야 한다;
- 2=한반도 평화를 외교적(경제적, 군사적)으로 도움 필요 없다;
- 3=잘 모르겠다

- 각 문항의 긍정 답변(“외교적(경제적·군사적)으로 도와야 한다”)의 비율을 위의 그래프에 국가별로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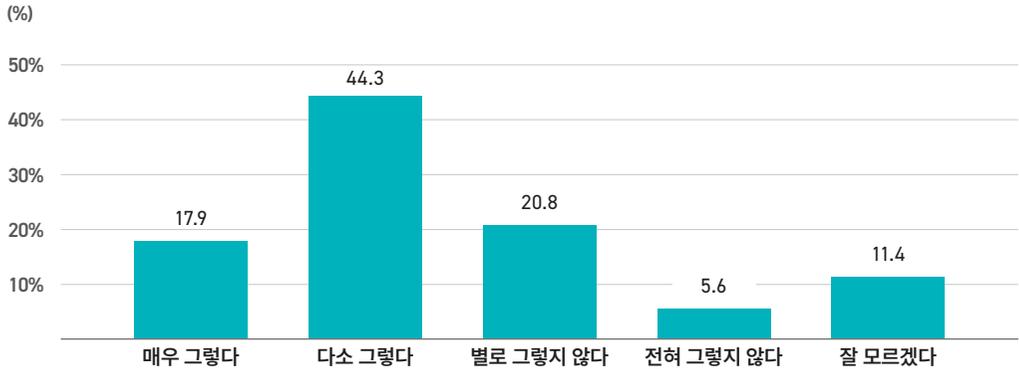
가장 적극적인 미국, 소극적인 일본

- 조사대상국가 중,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과 일본임. 미국은 외교적 지원 67.3%, 경제적 지원 54.8%, 군사적 지원 52.1%로 골고루 높은 경향을 보임.

- 미국의 이러한 긍정적인 여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중심주의 혹은 고립주의적 경향을 고려했을 때 의외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즉,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동맹정책과는 별개로 미국의 대중들은 한반도에 대한 동맹국으로서의 미국의 책임을 중시하고 있으며,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높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
- 즉, 트럼프 정부의 외교정책과 미국의 여론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임.
- 일본의 경우, 모든 조사대상국 중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원하는 것에 가장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외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50% 이상이었는데, 일본만 유일하게 36.7%로 소극적. 경제적·군사적 지원에 대한 동의율도 각각 25.8%과 12.7%로 낮음.
 -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의 여론이 소극적인 것은 남한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국가 이미지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즉, 단순히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설득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남한에 대한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를 높이려는 통일 공공외교적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임.
-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외교적 지원 외에, 경제적 지원에 대한 동의를 보면 독일(55.7%), 캐나다(54.7%), 몽골(63.8%)이 절반 이상 동의
 - 그러나 같은 G7 국가인 이탈리아는 40.8%, 폴란드는 41.3%로 상대적으로 경제적 지원에 소극적임.
 - 이는 각국의 현재 경제 사정과 수준, 그리고 특히 폴란드의 경우 러시아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사정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됨.
- 몽골의 경우, 외교적·경제적·군사적 지원에 모두 60%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

2.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그림 III-2] 독일의 통일 경험과 한반도 통일



조사문항

- **질문** “독일 통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통일을 권하시겠습니까?”
- **척도** 1=매우 그렇다; 2=다소 그렇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5=잘 모르겠다
- 이 문항은 독일 조사에서만 사용된 문항임.
통일을 직접 경험한 독일 국민의 경험을 묻기 위해 설계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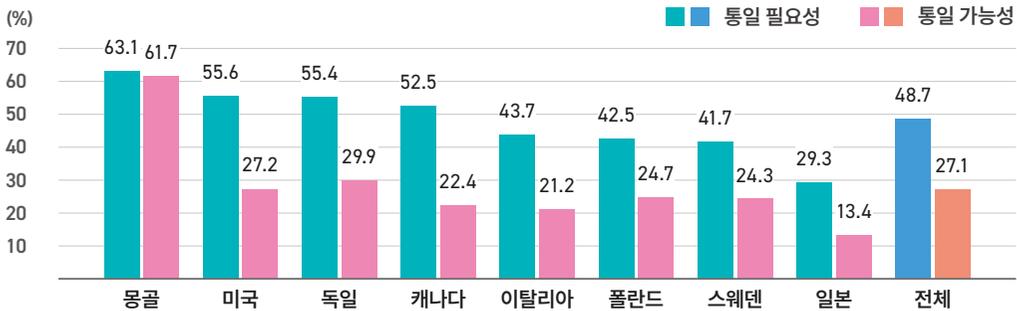
통일에 대한 권유

- 긍정답변(“매우 그렇다”+“다소 그렇다”)과 부정답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으로 나누어 볼 경우, 긍정 답변이 62.2%, 부정 답변이 26.4%로 분포되어 있음. 즉, 독일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남북한 통일을 권유하고 있음. 그러나 26.4%의 부정 답변도 아주 낮은 비율이라고 볼 수 없음.
- 2019년 독일의 중부독일방송(mdr)은 동서독 주민을 대상으로 “동독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당시 독일이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었음).
 - 그 결과, 구서독주민의 97%, 구동독주민의 88%가 되돌아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두 설문은 다른 의미이지만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 2019년 독일 조사보다 이번 조사에서 비권유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조사 시점(2025년 8월 현재)의 정치경제적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현재 독일은 정치적으로 극우정당 독일대안당(AfD)이 기민/기사당(CDU/CSU)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 이는 또 다른 국민정당인 사민당(SPD)보다 높은 지지율임.
- 경제적으로도 8월의 실업자 수가 3백만 명을 넘어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고 실업률은 2019년 가장 낮았던 때인 4.8%보다 높은 6.4%로 이러한 요인들이 응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3.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그림 III-3]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성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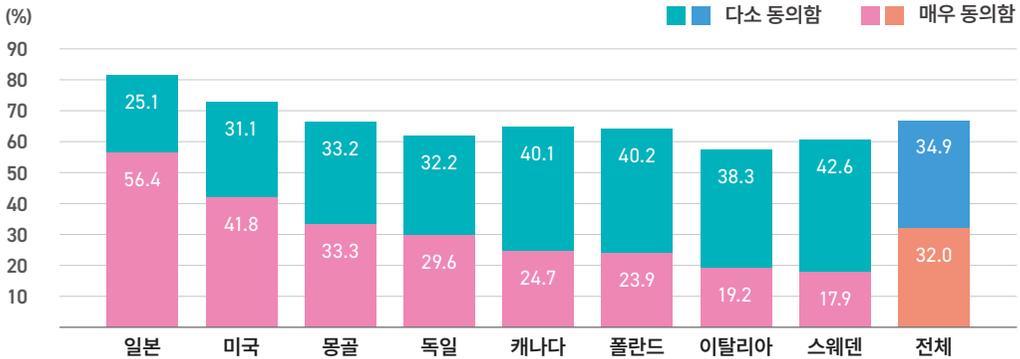
- **질문**
통일 필요성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척도**
1=매우 그렇다; 2=다소 그렇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5=잘 모르겠다
- 1+2 = “통일 필요성”. 위 그래프의 숫자는 남북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의 비율(%)임.
- **질문**
통일 가능성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척도**
1=아주 가능성이 높다; 2=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3=별로 가능성이 없다; 4=전혀 가능성이 없다; 5=잘 모르겠다
- 1+2 = “통일 가능성”. 위 그래프의 숫자는 남북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의 비율(%)임.

조사 대상국 전체적으로 남북통일이 필요하나 가능성은 작게 평가함

- 대체로 필요성과 가능성의 차이가 높았음. 즉,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남북통일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의구심을 갖고 있었음.
- 예외적으로 몽골에서는 상대적으로 필요성과 가능성이 비슷한 수준이었음. 즉, 통일은 필요하면서 동시에 성취 가능하다고 인식함.
- 특히, 통일을 경험한 독일에서 다른 나라들에 비해 통일의 필요성(55.4%)이 높았던 것은 주목할 만함. 마찬가지로 독일인들은 통일 가능성(29.9%)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함.
- 일본은 다른 나라보다 남북통일 필요성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는 동시에 가능성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이는 일본 국민들이 남북통일이 일본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음.
 - 통일을 위해 주변국의 지지가 필요함을 생각하면, 이러한 일본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통일 공공외교 정책의 개발이 필요함.

4. 북핵의 자국 평화 위협에 대한 인식

[그림 III-4] 국가별 북핵 자국 평화 위협 인식



조사문항

- 질문 “북한의 핵무기는 (조사국)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 척도 1=매우 동의한다; 2=다소 동의한다; 3=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잘 모르겠다
- “다소 동의한다”와 “매우 동의한다” 답변의 비율을 위 그래프에 표시
- 동의 수준(“다소 동의함”+“매우 동의함”)이 높을수록 북한이 자국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평가함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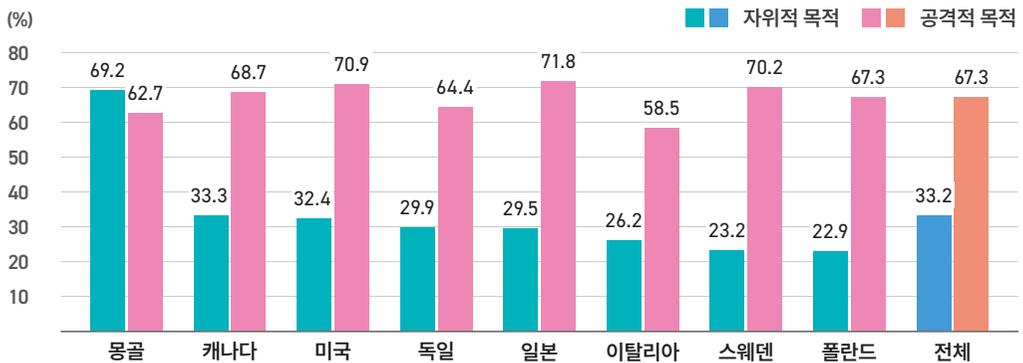
지리적 인접 국가에서 높은 위협 인식

- 일본에서 가장 높은 자국 평화 위협 인식 수준이 확인됨. 이는 표준오차를 고려하더라도 타국과 비교해 유의하게 높음. 북핵이 자국 평화를 위협한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비율이 81.5%(‘매우 동의한다’ 56.4%, ‘다소 동의한다’ 25.1%)이며, 타국과 비교할 때 ‘매우 동의한다’ 비율이 확연하게 높음.
- 일본에 이어 미국이 높은 위협 인식 수준을 보임. 동의 비율이 72.9%(‘매우 동의한다’ 41.8%, ‘다소 동의한다’ 31.1%)에 이룸.
- 수교국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우호적 관계에 있었던 몽골에서도 위 진술에 66.5%가 동의함. 결국 조사 대상국 가운데 일본, 미국, 몽골처럼 북한 인접국 또는 북핵 문제에 직접 관여된 국가에서 북핵의 자국 평화 위협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유럽 국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북핵이 자국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진술에 동의하는 비율이 이탈리아(57.6%)를 제외하면 60%를 웃돌지만,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30% 미만으로 동의 강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남.

5. 북핵의 목적에 대한 인식

[그림 III-5] 국가별 북핵 목적 인식: 자위적 vs. 공격적



조사문항

- 질문
 - (1) 자위적 목적 “북한의 핵무기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 (2) 공격적 목적 “북한의 핵무기는 다른 국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 척도 1=매우 동의한다; 2=다소 동의한다; 3=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5=잘 모르겠다
- 두 질문에 대해 동의 답변(“다소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의 비율을 위 그래프에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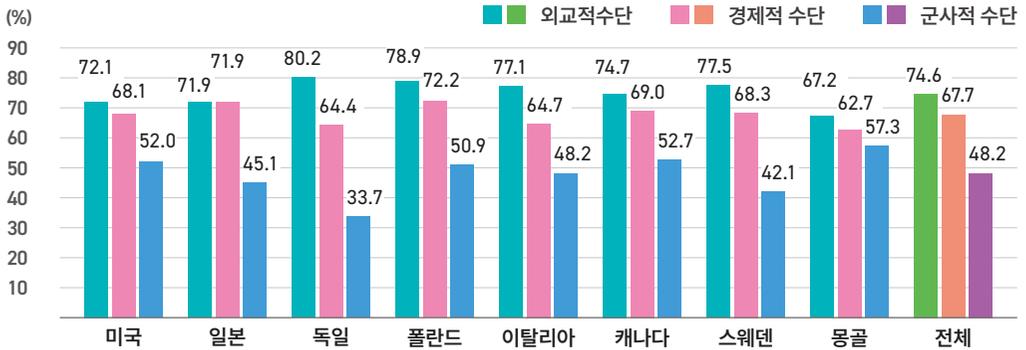
자위적 목적 vs. 공격적 목적

- 자위적 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공격적 목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반드시 역의 관계인 것은 아님. 즉 자위적 목적이면서 공격적 목적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북한에 대한 불신이 심할수록 북한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고, 북핵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지지할 가능성이 큼.

-
- 몽골을 제외하고, 대체로 북한이 자위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답한 비율은 20~30%에 그침.
 - 대상국 응답자의 다수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자위보다는 공격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봄.
 - 예외적으로 몽골 대중의 69.2%가 북한의 핵무기를 자위적 목적으로, 동시에 62.7%가 공격적 목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 북한은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핵이 필요하다는 자위적 목적론을 내세움. 그러나 이 조사 결과는 이러한 북한의 주장이 국제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6.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한 선호

[그림 III-6] 국가별 북한 비핵화 방안별 선호 비율



조사문항

- (1) 외교적 수단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외교적 협상을 해야 한다”
 - (2) 경제적 수단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세계의 국가들이 협력하여 북한에 경제제재를 가해야 한다”
 - (3) 군사적 수단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해야 한다”
- 척도 1=매우 그렇다; 2=다소 그렇다; 3=별로 그렇지 않다; 4=전혀 그렇지 않다; 5=잘 모르겠다
 - “다소 동의한다” 및 “매우 동의한다” 응답을 합산한 비율을 위 그래프에 표시
위 그래프의 숫자는 각 비핵화 방안에 대한 동의 비율(%)을 의미

(1) 외교적 수단을 통한 비핵화

- 국가별로 보았을 때 북핵 위협 인식 수준이 높은 미국이나 일본에서 외교적 수단 활용에 대한 동의 비율은 각각 72.1%, 71.9%로 다른 조사 대상국에서의 비율과 비교해 높지 않음. 통일을 달성한 독일에서 외교적 수단을 활용한 북핵 문제 해결에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은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다른 수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고 직접적 위협은 크지 않은 외교적 수단 사용에는 전반적으로 동의하지만, 오히려 북한에 대한 위협을 크게 느끼는 국가(일본)에서는 외교적 수단 사용에 대한 동기가 평균적인 수준에서 형성됨. 이는 이들 국가 내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수단의 효과에 회의적인 대중의 의향이 반영된 것일 수 있음.

(2) 경제적 수단을 통한 비핵화

- 경제적 수단 사용에 대한 동의 비율은 외교적 수단 사용에 대한 동의 비율보다는 전반적으로 약간 낮은 수준을 보임(외교적 수단 사용 평균 74.6%, 경제적 수단 사용 평균 67.7%).
- 조사 대상국 가운데 일본(71.9%)과 폴란드(72.2%)에서 높은 동의 비율을 보임. 특히, 일본의 경우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8.9%로 조사국 가운데 가장 높음. 상대적으로 몽골(62.7%)은 낮은 편임.

(3) 군사적 수단을 통한 비핵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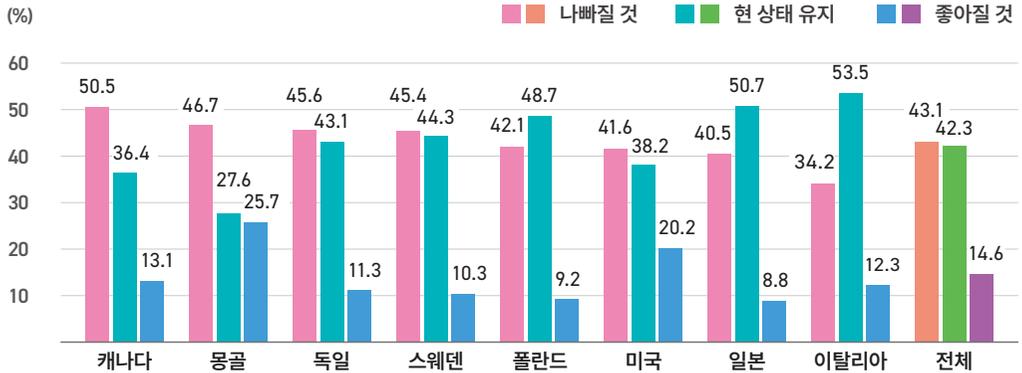
- 가장 강력한 수단인 군사적 수단 사용에 동의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8.2%로, 외교적·경제적 수단 사용에 동의하는 비율과 비교해 상당히 낮게 나타남.
- 국가별로는 몽골(57.3%), 미국(52.0%), 폴란드(50.9%), 캐나다(52.7%)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독일(33.7%)과 일본(45.1%)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일본 대중은 경제적·외교적 수단 사용에는 적극적이지만, 인접국으로서 군사적 수단을 활용하는 것에는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인해 타국 대중에 비해 소극적인 것으로 사료됨.
- 통일을 경험한 독일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가장 부정적이라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음.

IV. 국제 정세와 안보

IV. 국제 정세와 안보

1. 미중관계 5년 전망

[그림 IV-1] 미중관계 5년 전망



조사문항

- 질문 “귀하는 향후 5년 내 미중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 척도 1=매우 나빠질 것이다; 2=다소 나빠질 것이다; 3=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다; 4=다소 좋아질 것이다; 5=매우 좋아질 것이다
- 1+2=“나빠질 것”, 3=“현 상태 유지”, 4+5=“좋아질 것”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미중관계에 대한 부정적 전망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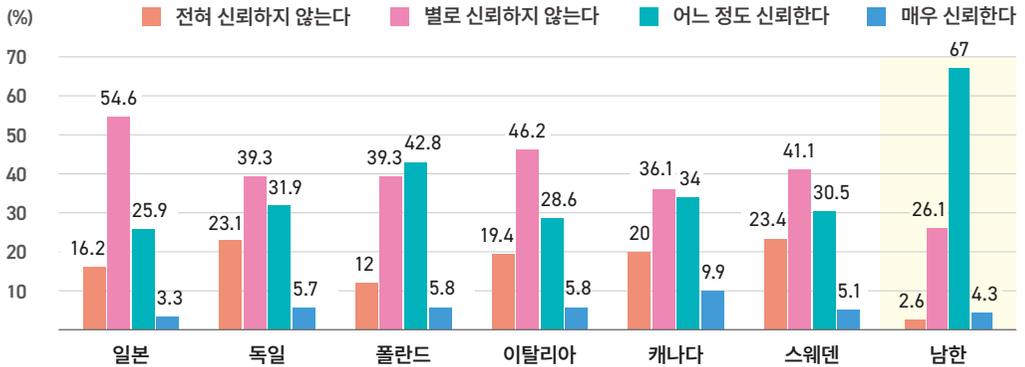
- 조사 대상국 전체 응답자의 43.1%가 향후 5년 내 미중관계가 나빠진다고 전망한다(“매우 나빠질 것”+“다소 나빠질 것”), 그리고 42.3%가 현 상태가 유지된다고 답함.
- 현재 미중 간 긴장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약 86%가 부정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러한 평가는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유사함.
 -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 의식 조사에서는 같은 문항을 사용하여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미중관계에 대한 전망을 물어봄.
 - 2022년 KINU 통일 의식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약 31.5%가 ‘나빠진다’, 58.6%가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응답해 약 90%의 응답자가 미중관계를 부정적으로 예측함.

미국인의 높은 긍정적 전망 비율과 함의

- 미중경쟁의 당사자인 미국의 긍정적 전망(다소 좋아진다, 매우 좋아진다)이 몽골(25.7%) 다음으로 높은 20.2%로 조사됨.
- 트럼프의 두 번째 당선으로 인해 미중 전략적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는 대부분의 전망과 달리, 트럼프 당선 이후 미중 관계는 기대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이 미국인들의 인식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 한반도 평화 진전과 통일의 핵심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한반도 정세에 매우 중요함.
-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했듯, 피스 메이커 역할을 자임하는 트럼프 정부와 함께 남한이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에 기반 한 공공외교 정책 개발 및 균형적 접근 추진이 필요함.

2. 미국의 핵우산 정책 신뢰

[그림 IV-2] 미국의 핵우산 정책 신뢰



조사문항

- 질문 “귀하는 _____ (조사국)이 적국으로부터 핵무기 공격을 받다면 미국이 핵무기로 그 적국을 공격한다는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 척도 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3=어느 정도 신뢰한다; 4=매우 신뢰한다
- 남한의 핵우산 신뢰도는 같은 문항으로 조사된 2025년 KINU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인용
KINU 통일의식조사는 1,00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 방식을 사용한 연례 여론조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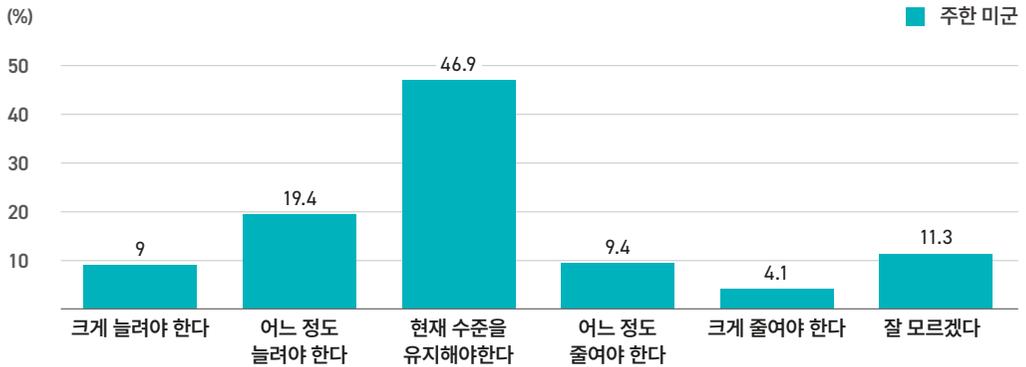
남한과 폴란드가 미국의 핵우산 신뢰도 최고치

- 폴란드 응답자의 48.6%가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한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반면 일본의 경우 29.2%만이 신뢰한다고 답해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임. 이는 미일동맹이 일본의 안보에 대해 갖는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의외로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음.
- 이번 조사 응답자의 38.2%가 미국의 핵우산을 신뢰한다(어느 정도, 매우)고 답해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신뢰하는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함.
- 통일연구원의 연례 여론조사 프로그램인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는 남한 국민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사용해 미국의 핵우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함.

-
- KINU 통일의식조사는 대면면접조사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온라인 조사인 글로벌 통일인식조사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음.
 - 2025년 KINU 통일의식조사에서 남한 국민의 71.3% (“어느 정도 신뢰” 67.0%; “매우 신뢰” 4.3%)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신뢰한다고 응답함.
 - 즉, 미국의 핵우산으로 보호받는 미국의 동맹국과 나토 회원국들과 비교했을 때, 남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국 핵우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높은 편임. 조사방식의 차이를 감안해도 남한의 핵우산 신뢰도는 압도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차이의 함의는, 남한의 자체적 핵 무장을 선호하는 여론은 미국의 핵 확장 억제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임.

3. 미국인이 인식하는 주한미군

[그림 IV-3] 미국인의 주한미군 규모



조사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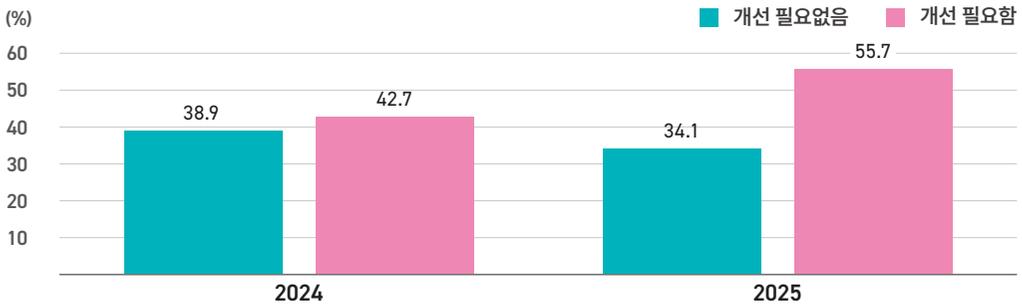
- **질문**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척도** 1=크게 늘려야 한다; 2=어느 정도 늘려야 한다; 3=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4=어느 정도 줄여야 한다; 5=크게 줄여야 한다; 6=잘 모르겠다
- 이 문항은 미국 조사에서만 사용된 문항임.

미국인의 약 75%가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 또는 확대 선호

-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인은 13.5%인 반면 미국인 75%는 현 수준 유지 또는 확대를 선호
 - 다시 말해 미국인의 4분의 3 이상이 주한미군의 축소를 원하지 않음. 이는 미국 국민 다수가 국제 안보에서 미국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으로 미국이 자국우선주의적 정책 노선을 펼치고 있으나, 이 정책이 미국 대중의 여론을 반드시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임.
 - 다수의 미국인들은 국제 안보를 위해 미국이 비용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

4. 북일 관계

[그림 IV-4] 북핵 문제와 북일 관계 개선 필요성



조사문항

- 질문 “북한 핵 문제와 관계없이 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
- 척도 1=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3=다소 동의한다; 4=매우 동의한다; 5=잘 모르겠다
- 1+2=“개선 필요없음”, 3+4=“개선 필요함”으로 코딩하여 위 그래프에 표시
- 이 문항은 일본 조사에서만 사용된 문항임.

일본인들의 55.7%가 북핵과 상관없이 북일관계 개선에 동의

- 2025년 조사에서 북한 핵 문제와 관계없이 북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55.7%인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4.1%를 기록함.
- 2024년 조사와 2025년 결과를 비교하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본 응답자의 비율은 42.7%에서 55.7%로 13%p 높아졌음.
- 이는 일본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용적인 태도로 외교 및 안보 사안에 접근한다는 의미로, 대일정책 수립에 매우 큰 의미를 가지는 조사 결과라 할 수 있음.



Executive Summary
2025 글로벌 통일인식조사